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홍춘욱

02) 3787-4964 chunukhong@kiwoom.com

국제유가 4.24% 급등

재고 감소 및 노르웨이 파업 우려 부각

Global 시장 동향 - 원자재, 금융주 강세

아시아 시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브렉시트 불안심리 완화로 강세. 한국은 외국인 순매수로, 중국은 위안화 강세로, 일본은 엔화 약세로 상승 (한국 +1.04%, 일본 +1.59%, 중국 +0.69%).

유럽은 브렉시트보다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국제유가가 재고 감소로 상승. 비철금속 또한 국제유가 강세와 중국 발 수요 증가 가능성에 상승. 앵글로아메리칸(+8.06%), 툴루오일(+5.09%), 아르셀로 미탈(+4.59%) 등 원자재주가 상승 주도(독일 +1.75%, 영국 +3.58%, 프랑스 +2.60%).

미국 증시는 애틀란타 연연에서 발표하는 2분기 GDP성장률 전망이 2.7%로 상향 조정되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국제유가도 원유재고 감소 및 달러약세로 50달러 가까이 상승하자 코노코필립스(+4.67%) 등 에너지주 강세. 미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커진 국제유가와 경기개선 기대감에 일부 소매업종과 금융주, 에너지주가 상승 주도(다우 +1.64%, 나스닥 +1.86%, S&P 500 +1.70%).

주요상품 동향 - 원유재고 감소로 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EIA 원유재고보고서'에서 원유재고가 전주(90만 배럴 감소)보다 감소폭이 큰 410만 배럴 감소로 발표됐고, 정제유도 전주(20만 배럴 증가)보다 180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 노르웨이 노동자들 파업 소식도 상승에 영향(WTI +4.24%, 49.88달러)

EU정상회담(29일) - 9월 16일 차기 회담 개최

EU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이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4가지 자유(물품, 자본, 서비스, 사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 그리고 "금융시장이 기대했던 EU개혁 정책은 이견이 많아 논의만 있었으며, 9월 16일 차기 회담에서 논의 될 것"이라 밝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에 있는 금융허브는 EU국가로 이동 할 것" 이라고 지적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 또한 "영국이 EU를 떠난 후 특혜를 누리겠다는 점은 인정 못한다"며 영국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

목차

Global 시장 동향	2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4
한국 주식시장 전망	5
주요 경제지표 결과	6
상품 및 FX시장 동향	7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D-5
KOSPI	1,956.36	+1.04	-1.82
KOSDAQ	669.88	+1.60	-2.66
DOW	17,694.68	+1.64	-0.48
NASDAQ	4,779.25	+1.86	-1.12
S&P 500	2,070.77	+1.70	-0.70
상하이종합	2,931.59	+0.65	+0.90
일본	15,566.83	+1.59	-3.11
홍콩恒生	20,436.12	+1.31	-1.73
영국	6,360.06	+3.58	+1.58
독일	9,612.27	+1.75	-4.56
프랑스	4,195.32	+2.60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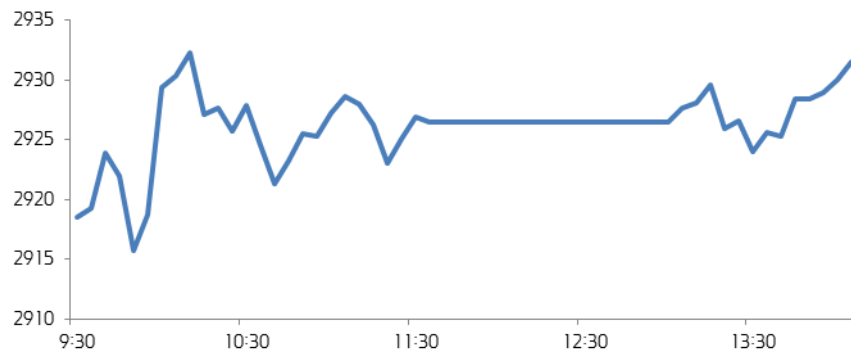
Global 시장 동향

한국 +1.04%
일본 +1.59%
중국 +0.69%

아시아시장 – 일본 증시 엔화약세로 상승

아시아 시장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브렉시트 불안심리가 누그러진 분위기로 인해 상승했다. 한국은 외국인 순매수로, 중국은 위안화가 안정을 보이자 상승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로 도요타(+2.89%), 닛산(+2.28%), 혼다(+1.72%) 등 수출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중국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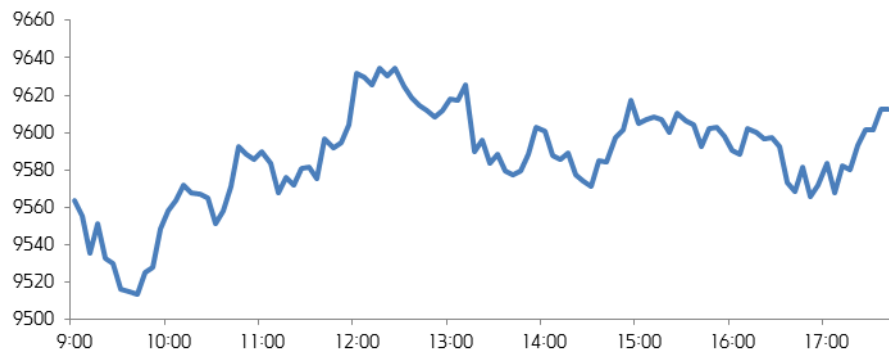
유럽시장 – 원자재주 상승 주도

독일 +1.75%
영국 +3.58%
프랑스 +2.60%

유럽은 브렉시트 불안감 완화 속에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했다. 장 초반부터 시장참여자들은 브렉시트보다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제유가가 재고 감소로 상승했다. 구리를 비롯 여타 비철금속 또한 국제유가 강세와 중국 발 수요증가 가능성에 강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는 앵글로아메리칸(+8.06%), 툴루오일(+5.09%), 아르셀로 미탈(+4.59%), 로알 더치 셀(+4.74%), 리오티토(+3.16%) 등 원자재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독일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다우 +1.64%
나스닥 +1.86%
S&P 500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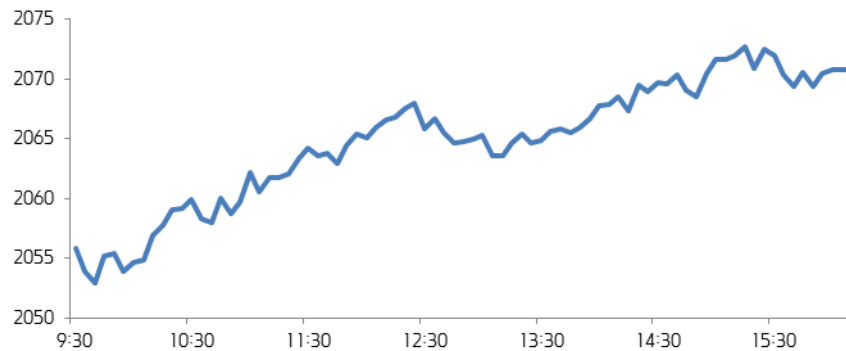
미국시장 – 금융주, 에너지주 강세

미국 증시는 애틀랜타 연에서 발표하는 2분기 GDP성장률 전망이 2.7%로 상향 조정하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원유재고 감소 및 달러약세로 50달러 가까이 상승(+4.24%, 49.88달러)하자 코노코필립스(+4.67%) 등 에너지주가 강세였다.

더불어, 상품가격이 안정을 보이고 브렉시트 불안도 완화되자,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다. BOA(+3.86%) 등 금융주 강세요인이다.

미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커진 국제유가와 경기개선 기대감에 일부 소매업종과 금융주, 에너지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S&P500 일종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기술주는

전일 장 마감 후 악화된 실적과 선주문 부진을 발표했던 나이키(+3.84%)는 글로벌 경기 불안에도 선전했다는 일부 분석과 함께 달러약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경쟁사인 언더아머(+5.94%) 또한 동반 상승했으며 메이시스(+2.74%), TJX(+2.36%) 등 소매업종도 상승했다.

항암제 제조사인 테사로(108.01%)는 난소암 치료제와 관련된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목표에 도달했다는 발표하자 크게 상승했다. 유사업종인 클로비스(+21.89%)와 바이오젠(+4.55%) 등 관련주도 상승했다.

미 경기개선 가능성이 확대되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잠재우자 BOA(+3.86%), 씨티그룹(+4.15%), JP모건(+2.82%) 등 금융주가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재고 감소로 상승했다. 코노코필립스(+4.67%), EOG리소스(+2.07%), 데본에너지(+1.94%), 할리버튼(+3.05%) 등 에너지주가 강세였다.

주요 ETF

	ETF 명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2.33%
소매업체 ETF	SPDR S&P Retail ETF	+2.29%
금융섹터 ETF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2.27%
기술섹터 ETF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1.54%
SNS업체 ETF	Global X Social Media Index ETF	+1.67%
인터넷업체 ETF	First Trust Dow Jones Internet Index Fund	+2.03%
부동산섹터 ETF	The 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1.74%
주택건설업체 ETF	SPDR S&P Homebuilders ETF	+1.69%
바이오섹터 ETF	iShares Nasdaq Biotechnology ETF	+2.15%
헬스케어 ETF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1.91%
곡물 ETF	PowerShares DB Agriculture Fund	+0.86%
하이일드 ETF	SPDR Barclays High Yield Bond ETF	+1.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7.93	+2.02%	+0.10%	+2.14%
소재	286.19	+1.69%	-3.88%	-2.93%
산업재	477.94	+1.76%	-1.85%	-1.21%
경기소비재	615.77	+1.64%	-1.09%	-1.94%
필수소비재	552.80	+1.15%	+0.21%	+1.79%
헬스케어	821.59	+1.87%	+0.79%	-0.47%
금융	303.63	+2.31%	-1.57%	-5.18%
IT	705.59	+1.66%	-1.53%	-3.57%
통신	179.88	+0.98%	+2.26%	+8.77%
유틸리티	260.97	+0.28%	+2.33%	+4.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야간선물

+1.60p 244.50p

KOSPI 환산 1,969p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 예상

MSCI한국지수는 2.34% 상승했고 MSCI 신흥지수도 2.53%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1,139계약)로 1.60p 상승한 244.50p로 마감했다. KOSPI로 환산하면 1,969p다.

NDF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5.00원으로 마감했다. 전일 서울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브렉시트 우려 완화로 11.10원 하락한 1,160.20원으로 마감했다. 이를 감안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한국증시는 전일과 같이 국제유가 및 파운드화와 위안화 강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증시는 국제유가가 API원유재고보고서에서 재고감소 발표하자 강세였다. 달러약세도 영향을 줬다. 파운드화와 위안화는 브렉시트 불안이 완화되자 강세였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이 순매수하자 주가지수 상승했다.

오늘도 EIA 원유재고보고서에서 원유재고가 감소했다. 국제유가는 5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파운드화와 위안화 또한 브렉시트 불안이 완화되며 달러대비 강세다.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편 브렉시트 관련 'EU정상회담'이 끝나고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이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4가지 자유(물품, 자본, 서비스, 사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에 있는 금융허브는 EU 국가로 이동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 또한 'EU를 떠난 채로 특혜를 누리겠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했다.

시장이 요구했던 국가별 재정정책 확대 등 정책변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EU 개혁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9월 16일 EU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불안이 완화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지수 상승이 확대되면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증시는

국제유가, 파운드화,

위안화 강세로

상승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핵심 PCE가격지수 1.6% 유지

미 개인소득 지출 감소

미국 5월 개인소득지출을 보면 소득은 전월(0.5%)보다 둔화된 0.2%에 그쳤으며, 지출도 전월(1.1%)보다 감소한 0.4% 증가에 그쳤다. 5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대비(MoM) 0.2%, 전년동월대비(YoY) 0.9% 증가하였다. 전년동월대비 서비스가격은 상승(2.2%) 하였으나 상품가격이 1.8% 하락한 영향이 컸다. 음식료 및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E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0.2%, 1.6% 증가하였다.

미국 5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대비(MoM) 3.7% 감소하였다. 북동부(-5.3%), 남부(-3.1%), 서부(-3.4%)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주택계약이 줄어들었다.

애틀란타 연은

2분기 성장률 전망 2.7%로 상향조정

애틀란타 연은은 2분기 성장률을 2.7%로 상향 조정했다. 1분기 GDP성장률 확정치 상향조정과 양호한 개인소득지출 때문이다.

애틀란타 연은 GDPNow - 미국 2분기 GDP성장률 2.7%로 상향조정

일자	주요 지표 발표	GDP	PCE
29-Apr	최초 예상치	1.8	2.8
31-May	GDP (May 27), Personal Income/PCE	2.9	3.6
1-Jun	Constr. spending, ISM Manufacturing	2.5	3.5
2-Jun	Auto sales, ISM Nonmanuf. (Weds)	2.5	3.5
3-Jun	Employ, Intl tr, M3 Man, ISM Nonman	2.5	3.5
9-Jun	Wholesale trade	2.5	3.5
10-Jun	Monthly Treasury Statement	2.5	3.5
14-Jun	Retail trade, Import/export prices	2.8	3.9
15-Jun	Industrial production, PPI	2.7	4.0
16-Jun	Consumer Price Index	2.7	4.1
17-Jun	Housing starts	2.8	4.1
22-Jun	Existing home sales	2.8	4.1
23-Jun	New home sales/construct. costs	2.7	4.1
24-Jun	Advance durable manufacturing	2.6	4.1
27-Jun	Advance intl. trade (goods)	2.5	4.1
29-Jun	GDP (Jun 28), Personal Income/PCE	2.7	4.3

자료: 애틀란타 연은, 키움증권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국제유가, 원유 재고 감소와 노르웨이 파업 가능성에 4.24% 상승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선 근접

국제유가는 EIA 주간 원유재고보고서에서 원유 재고가 405만 3천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노르웨이 유전 파업 가능성에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한때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휘발유 재고가 136만 7천 배럴 증가했다는 점에 상승은 제한되었다.

달러지수, 브렉시트 우려 완화와 미 경제지표 둔화로 하락

달러지수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상품 통화 등이 대부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인 점도 달러 약세 요인이었다. 잠정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3.7% 감소하였고, 미국 5월 개인소득은 전월(0.5%)보다 둔화된 0.2%에 그쳤으며, 지출도 전월(1.1%)보다 감소한 0.4% 증가에 그쳤다.

국채금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국채 수요가 완화된 것이다.

귀금속은 브렉시트 우려 완화로 인한 달러 약세(파운드 강세, 유로 강세)로 상승했다. 다만 장 마감 후에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비철금속 역시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고 달러 약세로 인해 상승했다. 곡물 가격은 다음날 발표되는 미 농무부의 연간 파종면적 보고서를 앞두고, 파종 면적이 3월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9.88	+4.24	+1.53
브렌트유	50.61	+4.18	+1.46
금	1326.9	+0.68	+4.48
은	18,362	+2.91	+6.07
알루미늄	1,626.50	+1.75	-0.46
전기동	4,806.50	+2.11	+2.27
아연	2,076.00	+3.80	+0.92
옥수수	377.75	-2.83	-5.15
밀	444.5	-2.79	-5.88
대두	1123	-0.64	-0.07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5.703	-0.56	+2.12
EUR/USD	1.1125	+0.54	-1.51
USD/JPY	102.83	+0.08	-1.51
GBP/USD	1.3429	+0.64	-8.69
USD/CHF	0.9797	-0.22	+2.21
AUD/USD	0.7451	+0.88	-0.67
USD/CAD	1.2935	-0.69	+0.71
USD/BRL	3.2206	-2.50	-4.65
USD/CNH	6.6545	-0.45	+1.10
USD/KRW	1160.2	-0.95	+0.50
USD/KRW NDF 1M	1155.05	-1.11	+0.46

국채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16	+4.91	-16.97
한국	1.455	-2.70	-18.00
일본	-0.230	-1.50	-9.20
독일	-0.126	-1.40	-18.70